

배포 일시	2022. 7. 6.(수)		
담당 부서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용옥 (031-210-2605)
		담당자	사무관 장영기 (031-210-2710)
보도일시	2022년 7월 7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7.(목) 06:00 이후 보도 가능		

우리나라 최초의 지명조사철 어떻게 생겼나?

- 국토지리정보원, 지명의 다양한 가치를 담은 방대한 역사기록물 서비스 -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지명*과 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학계의 관련 분야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1959년에 작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전국 지명조사철 194권을 2022년 7월 6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에 공개했다.

* 지명(地名) :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

**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하는 수치지도, 항공사진, 기준점, 지명정보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시스템

- 이번에 공개되는 지명조사철은 1959년 시행된 지명조사사업 과정에서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대한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간정보 역사기록물이다. 총 1만 5천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로서, 작성된 지 60여 년 만에 처음 일반에 선보이게 되었다.

- 1950년대는 각 지형·지물이나 주요 장소를 일컫는 이름인 지명에 대하여 부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명의 혼선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주요 지명의 통일·제정을 목적으로 지명조사사업을 추진하였다.

- 지명조사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전신인 지리연구소 내에 설치된 중앙지명제정위원회와 시·도, 시·군, 읍·면·동에 각각 설치된 각급 지명제정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를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 전국 각지의 읍·면장, 이장 등을 포함해 각급 지명위원회에 참여한 인원은 3만3천 명에 이르렀으며,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로 볼 때 이 사업은 당시로서는 건국 이래 처음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공간정보 구축사업이었다.

□ 지명조사철에는 조사지역(행정구역), 조사용 도면, 각 지명별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지명별 조사결과 부분에는 ①현지에서 불리는 지명, ②지명의 종류, ③경위도, ④지명 유래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 '59년 지명조사표 기재내역 예시 〉

행정 구역 (*59년 기준)	지명조사 내역	지명 의 종류	지도 상 기재	유래 (*지명.지리정보로서 가급적 조사 당시 기재내용을 수정없이 기재)	시.군 위원회 제정	시.도 위원회 승인	중앙 위원 회 (심의)
서울 동대문구	중랑천 (中浪川)	하천	중랑천	단기4273년(서기1940년) 5월에 하천 양측 제방을 축조함	중랑천	-	중랑천
경기도 수원시	(A) 못골 (池谷) (B) 목골 (木谷)	부락	-	옛날에 그 부락에 못(池)이 있어서 못골(A)로 불려오다 속음(俗音)에 따라 목골(B)로 되었음	못골	못골	못골
경기 시흥군 (現 안양)	(A)이평촌동 (二坪村洞) (B) 번말 (C) 평촌동 (坪村洞)	부락	-	별판에 있는 곳이라 별말이라 하며 평촌동은 한자표시임 (인구 732명, 호수 120호)	평촌동	번말	평촌 동
제주 북제주군 (구좌면)	비자림 (樵子林)	삼림	-	지금부터 300년전부터 천연적으로 집단(集團)된 수목(樹木)이 입수(立樹)된 곳이며 나무의 수효는 약 3,000본에 이르러 명승지로 보호중임	비자림	비자림	비자림

- 아울러, 조사결과에는 마을, 산업시설 등 지명의 종류에 따라 거주 가구수, 근무자수 등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지명조사철은 통해 당시의 사회상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 정부는 지명조사철 내용을 근거로 1961년에 8만여건을 「표준지명사용에 관한 건」으로 관보에 고시하였고, 1963년에는 이렇게 고시된 표준지명을 근간으로 건국 이래 최초의 민간 지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 1961년에 실시한 표준지명의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명 고시 제도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지명에는 해당 장소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한국전쟁 이후 국토재건에 박차를 가하던 당시의 국토공간정보와 사회상을 지명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또한 “지명에 대한 방대한 역사기록물인 지명조사철 전문이 공개되는 만큼 관련 학계를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개되는 지명조사철 원문의 모든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에서 누구나 손쉽게 내려받기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공간정보
1
자료실
지원서비스

Q

자료실

지도자료 +

근대측량자료 >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

2

지리지 및 지명유래집 -

한국지리지

지명유래집

3

한국지도현황조사

전국 지명조사철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

지명사전 >

전국 지명조사철

[☛ 자료실](#) > [지리지 및 지명유래집](#) > [전국 지명조사철](#)

대한민국 최초 전국 지명조사철

우리나라 지명에 대한 조사 및 통일제정과 관련하여 1957년 5월 18일 제83차 국무회의에서 지리연구소(현 국토지리정보원)를 설치하여 지명제정사무를 처리토록 의결했다.

지리연구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북한지역 제외) 지명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958년에 중앙지명제정위원회와 지방의 각급 지명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전국단위 전수조사에 착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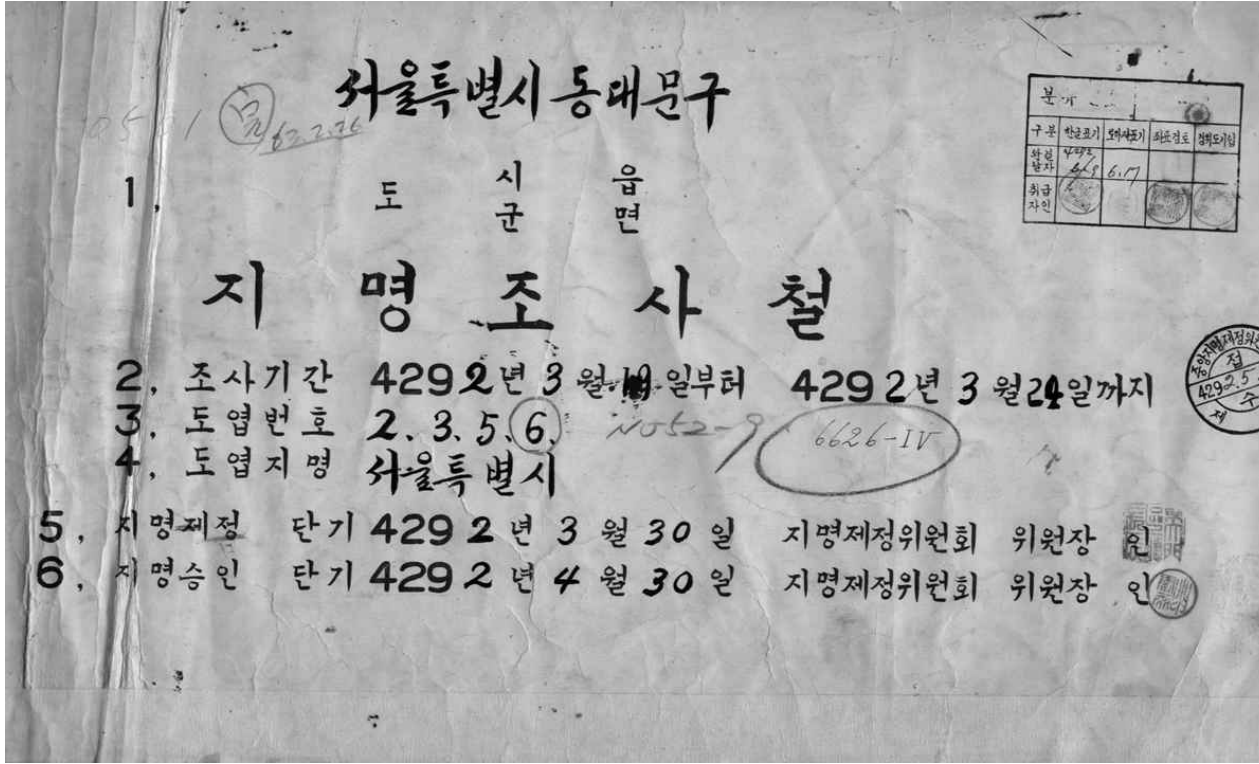
본 지명조사철은 19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급 지명제정위원회에 위촉된 지명위원들(약 3만3천 명)의 참여와 국민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지명조사철은 1961년 4월 22일 국무원 고시 제16호 "표준지명사용에 관한 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 바 있다.

* 본 자료에 포함된 지명 및 관련 정보는 현재의 지명 등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초 전국 지명조사철 자료

한반에 다운로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서울특별시	중앙



지명조사표

(1) 정지번호	(2) 행정구역명	(3) 명 지			(4) 지명의종류	(5) 지도상기재	(6) 경위도좌표	(7) 비고	(8) 유래	(9) 비고	(10) 담배위원회	(11) 상급위원회	(12) 종합위원회	
		A	B	C									인	한글표기
59	현내동				유역	소학교	29-1-11 37-38-20	297 576	424년 문명사기 등에 실린 유역의 지명. 수(水)의 수(水)에 유역(流)의 유(流)가 합쳐져서 유역(流)이 되었다고 한다. 유역(流)의 유(流)가 유(流)의 유(流)에 합쳐져서 유역(流)이 되었다고 한다.	지도상 표기			현내동	한글표기
60	현내동				유역	현내	29-1-11 37-38-20	297 576	424년 문명사기 등에 실린 유역의 지명. 수(水)의 수(水)에 유역(流)의 유(流)가 합쳐져서 유역(流)이 되었다고 한다. 유역(流)의 유(流)가 유(流)의 유(流)에 합쳐져서 유역(流)이 되었다고 한다.	지도상 표기			현내동	한글표기
61	현내동				유역	현내	29-1-11 37-38-20	297 576	424년 문명사기 등에 실린 유역의 지명. 수(水)의 수(水)에 유역(流)의 유(流)가 합쳐져서 유역(流)이 되었다고 한다. 유역(流)의 유(流)가 유(流)의 유(流)에 합쳐져서 유역(流)이 되었다고 한다.	지도상 표기			현내동	한글표기
62	현내동				유역	현내	29-1-11 37-38-20	297 576	424년 문명사기 등에 실린 유역의 지명. 수(水)의 수(水)에 유역(流)의 유(流)가 합쳐져서 유역(流)이 되었다고 한다. 유역(流)의 유(流)가 유(流)의 유(流)에 합쳐져서 유역(流)이 되었다고 한다.	지도상 표기			현내동	한글표기
63	현내동				유역	현내	29-1-11 37-38-20	297 576	424년 문명사기 등에 실린 유역의 지명. 수(水)의 수(水)에 유역(流)의 유(流)가 합쳐져서 유역(流)이 되었다고 한다. 유역(流)의 유(流)가 유(流)의 유(流)에 합쳐져서 유역(流)이 되었다고 한다.	지도상 표기			현내동	한글표기
64	현내동				유역	현내	29-1-11 37-38-20	297 576	424년 문명사기 등에 실린 유역의 지명. 수(水)의 수(水)에 유역(流)의 유(流)가 합쳐져서 유역(流)이 되었다고 한다. 유역(流)의 유(流)가 유(流)의 유(流)에 합쳐져서 유역(流)이 되었다고 한다.	지도상 표기			현내동	한글표기
65	현내동				유역	현내	29-1-11 37-38-20	297 576	424년 문명사기 등에 실린 유역의 지명. 수(水)의 수(水)에 유역(流)의 유(流)가 합쳐져서 유역(流)이 되었다고 한다. 유역(流)의 유(流)가 유(流)의 유(流)에 합쳐져서 유역(流)이 되었다고 한다.	지도상 표기			현내동	한글표기
66	현내동				유역	현내	29-1-11 37-38-20	297 576	424년 문명사기 등에 실린 유역의 지명. 수(水)의 수(水)에 유역(流)의 유(流)가 합쳐져서 유역(流)이 되었다고 한다. 유역(流)의 유(流)가 유(流)의 유(流)에 합쳐져서 유역(流)이 되었다고 한다.	지도상 표기			현내동	한글표기
67	현내동				유역	현내	29-1-11 37-38-20	297 576	424년 문명사기 등에 실린 유역의 지명. 수(水)의 수(水)에 유역(流)의 유(流)가 합쳐져서 유역(流)이 되었다고 한다. 유역(流)의 유(流)가 유(流)의 유(流)에 합쳐져서 유역(流)이 되었다고 한다.	지도상 표기			현내동	한글표기
68	현내동				유역	현내	29-1-11 37-38-20	297 576	424년 문명사기 등에 실린 유역의 지명. 수(水)의 수(水)에 유역(流)의 유(流)가 합쳐져서 유역(流)이 되었다고 한다. 유역(流)의 유(流)가 유(流)의 유(流)에 합쳐져서 유역(流)이 되었다고 한다.	지도상 표기			현내동	한글표기
69	현내동				유역	현내	29-1-11 37-38-20	297 576	424년 문명사기 등에 실린 유역의 지명. 수(水)의 수(水)에 유역(流)의 유(流)가 합쳐져서 유역(流)이 되었다고 한다. 유역(流)의 유(流)가 유(流)의 유(流)에 합쳐져서 유역(流)이 되었다고 한다.	지도상 표기			현내동	한글표기
70	현내동				유역	현내	29-1-11 37-38-20	297 576	424년 문명사기 등에 실린 유역의 지명. 수(水)의 수(水)에 유역(流)의 유(流)가 합쳐져서 유역(流)이 되었다고 한다. 유역(流)의 유(流)가 유(流)의 유(流)에 합쳐져서 유역(流)이 되었다고 한다.	지도상 표기			현내동	한글표기

□ 추진 배경 및 목적

- (배경) 지명의 중복으로 인한 국가행정, 교육, 문화, 산업 및 국내 지도 제작에 정확을 유지할 수 없고, 국제 문화교육까지도 많은 불편을 초래
 - * (조선시대) 한양·구리개 → (일제시대) 케이쵸(경성)·황금통 → (해방이후) 서울·을지로
- (목적) 체계적인 공간정보 구축·관리를 통한 지명의 통일 제정
 - 지명을 '호칭'하거나 '표기'할 경우에도 표준 기준이 없어 지도 제작에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체계적 구축·관리가 필요

□ 조사사업 추진 경위

- 1957 : 제83차 국무회의를 통해 '측지행정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리연구소(現 국토지리정보원)를 설치 제안
- 1958 : 지리연구소 및 중앙지명제정위원회를 설치
- 1959 : 우리나라 최초 전국(북한지역 제외)의 지명조사 실시
 - 전국 각 급 지명 제정위원회 위원 33천명을 위촉, 조사사업에 참여

행정구역의 명칭	자연지명	인공지명
각 급 행정구역별 명칭	산, 산맥, 령, 폭포, 바위, 계곡, 굴, 평야, 반도, 뱀중다리, 만, 섬, 군도, 못, 해협, 사장, 소습지, 삼림, 하천, 약수터	도시, 부락, 도로, 고개, 다리, 역, 굴, 광산, 제방, 저수지, 수로, 고적, 능, 온천, 나루터, 항구, 등대, 염전, 주요시설(교육, 문화, 종교 산업시설 등)

조사지명의 범위 >

- 1961 : 194권의 지명조사철 제작 및 국무회의에 지명조사 사업 보고
- 1961 : 전국지명 85,810건을 국무원 고시로 제정